<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부실부채 평가는 어떻게…

석유화학산업 합리화 및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채워졌으나,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부실과 공정평가 노력 부족, 그리고 관련기업들의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 압박을 내세워 부실채무의 출자전환과 출자전환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두루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커버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못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실금액을 명확히 밝혀내며,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제기함으로써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통합이 가능하게 하며,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을 합리화시킬 수 있음은 분명할 것이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통합협상을 위한 실사를 담당한 미국의 경영컨설팅기관 ADL의 평가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불행스럽게도 온 국민은 아니더라도 석유화학기업들이라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고 들리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삼성종합화학의 기업가치가 1조2000억원, 현대석유화학이 9000억원이라고 발표한 것을 국민들이나 석유화학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ADL이 양사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 할인방식으로 평가했다고 하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의 기업가치가 현대에 비해 3000억원정도 높게 평가됐다는데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DL이 삼성과 현대를 자산가치로 평가한 결과는 현대가 삼성에 비해 5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삼성의 미래가치가 현대에 비해 8000억-9000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이 합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해온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유현식 삼성종합화학 사장이 제일모직의 화성사업을 정상급으로 끌어올린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결코 과거의 부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현재의 자산가치를 명확히 계산할 때 합병협상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고,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양사가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눠 갖든, 양사의 지분이 49%를 넘지 않든 그것은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은행권의 출자전환이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결코 관여할 일이 아닐 것이다. 기업가치 차이만큼을 부족한 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출자키로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ADL의 실사결과에 따라 현대석유화학이 3000억원에 해당하는 출자를 단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현대석유화학이 ADL의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 원인은 석유화학기업 통합에 앞서 부실의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규명하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러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지 않은가 생각된다.

삼성종합화학이나 현대석유화학의 주거래은행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산업자원부는 정부지원의 전제조건을 어느 선까지 제시했는지, 실사를 벌였던 ADL은 과연 그러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기업의 통합 및 합리화는 적극 찬성이나, 부실의 규명과 책임추궁 없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화학저널 1999/4/5>